독서 종합 적용 ·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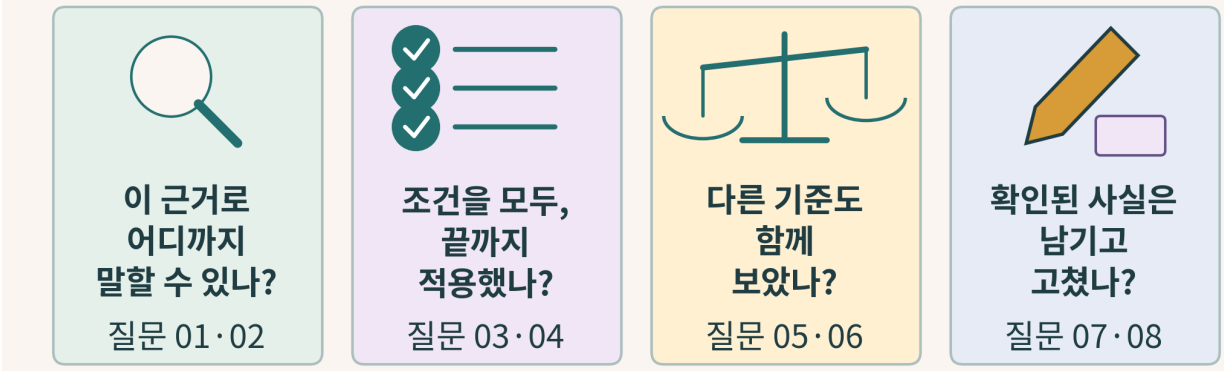
스스로 읽고 판단하기

개념 이해·적용 학습지

대치동 재우쌤

묶음	질문	문항
1. 주장에 맞는 근거 찾기	01~02	01~06
2. 조건을 끝까지 적용하기	03~04	07~12
3. 다른 기준을 함께 따지기	05~06	13~18
4. 근거를 보존하며 해석 고치기	07~08	19~24

판단을 점검하는 네 가지 질문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오독 표시 8종

표시	어떤 오해인가	연결 질문
원인 덧붙임	함께 일어난 일을 원인과 결과로 묶음	질문 01
수·비율 혼동	수의 증가를 비율의 증가로 바꿈	질문 02
조건 빠뜨림·보탬	조건을 빠뜨리거나 글에 없는 조건을 보탬	질문 03
순서·수량 무시	자격을 얻으면 실제로 받는다고 봄	질문 04
기준 하나만	다른 기준을 반대로 보거나 한 기준만 봄	질문 05
범위 넓힘	확인한 항목·대상·시간을 넘어 말함	질문 06
자료 넘어 확정	자료가 밝히지 않은 내용을 확정함	질문 07
사실 지움	고치면서 확인된 사실도 지우거나 낱말만 바꿈	질문 08

묶음 1 주장에 맞는 근거 찾기

이 묶음에서 던질 질문 **이 근거로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

용어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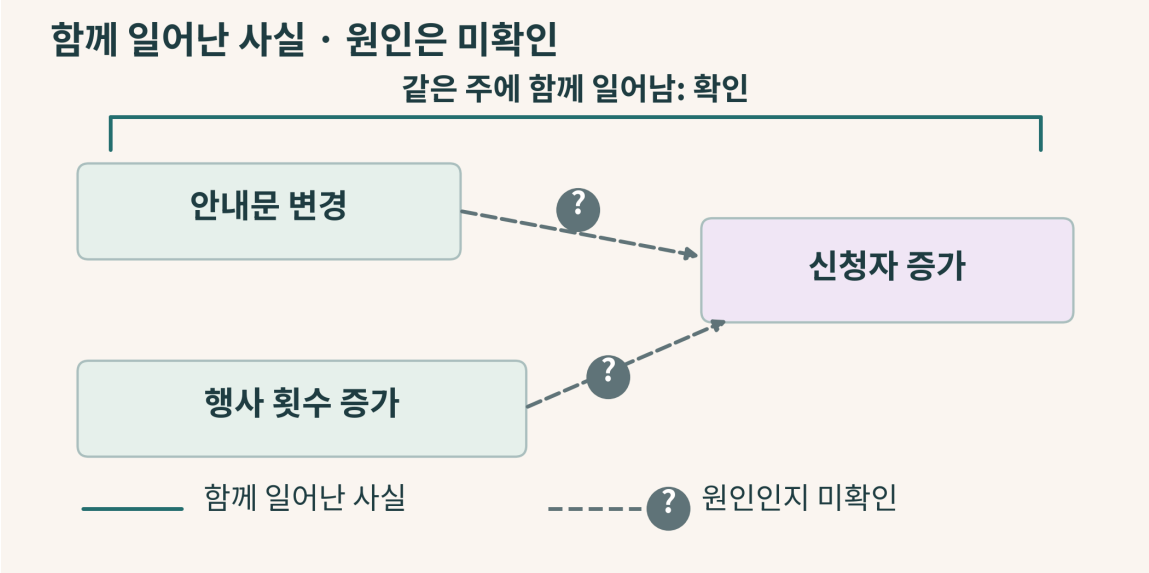
근거	어떤 판단을 뒷받침하는 내용
판단의 범위	누구·무엇에 관해, 언제·어떤 조건까지 말하는지의 범위
글과 일치하지 않는 판단	제시된 내용과 맞지 않는 판단
글만으로 알 수 없는 판단	제시된 근거만으로 맞는지 틀린지 정할 수 없는 내용
비율	비교하는 양 ÷ 기준량. 예: 12 ÷ 20 = 0.6. 백분율은 비율에 100을 곱한 수에 %를 붙여 나타내므로 60%이다.

Q01 글에 나온 말을 골랐는데도 왜 오답일까요?

답 **낱말이 같은 것과 판단이 같은 것은 다릅니다.** 글에 나온 대상·조건·결과를 옳게 옮겼는지, 그 사이의 관계까지 글과 맞는지 보아야 합니다. 두 사실이 각각 맞아도 그 둘을 원인과 결과로 묶을 근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비유 같은 블록도 끼우는 방식에 따라 다른 모양이 됩니다. 글의 낱말이 같아도 그 사이의 관계를 바꾸면 다른 판단이 됩니다. 이 비유는 조각과 연결을 구별하는 데까지만 맞으며, 글의 판단은 근거가 뒷받침하는 관계로만 이어야 합니다.

근거 글에 “안내문을 바꾼 주에 신청자가 늘었다. 그 주에는 행사 횟수도 늘었다.”라고 되어 있다면, 안내문 변경과 신청자 증가는 확인됩니다. 그러나 증가가 안내문 때문인지는 이 두 문장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행사 횟수의 변화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남습니다.



헷갈리지 말 것 '안내문이 원인임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은 '안내문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거가 부족한 판단은 곧바로 반대 판단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오해 바로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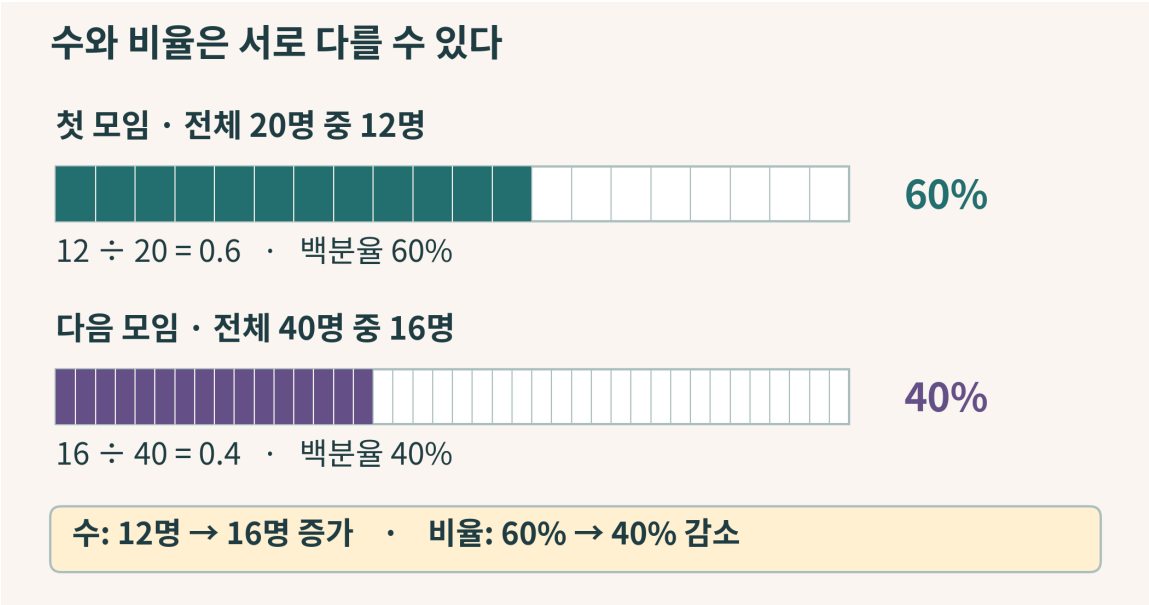
- ✗ **원인 덧붙임** 함께 일어난 두 사실을 연결하면 그 원인도 확인된다.
- ✓ 두 사실뿐 아니라 둘을 원인과 결과로 연결할 근거도 확인한다.

Q02 수가 늘었다면 비율도 높아진 것 아닌가요?

답 **비율을 비교하려면 전체의 크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부분의 수만 늘고 전체는 더 크게 늘었다면 비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비유 설탕을 더 넣어도 물을 훨씬 더 많이 부으면 설탕물은 묽어질 수 있습니다. 설탕의 양이 늘어도 설탕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부분과 전체의 비율을 비교하는 데까지만 맞으며, 여기서는 설탕물의 질량 대신 사람이나 상자처럼 하나씩 센 수로 비율을 구합니다.

근거 첫 모임에서 20명 중 12명이 손을 들고, 다음 모임에서 40명 중 16명이 손을 들었다고 합시다. 손을 든 사람은 12명에서 16명으로 늘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에서 40%로 낮아졌습니다. 이때 '손을 든 사람의 수'와 '참가자 중 손을 든 사람의 비율'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헷갈리지 말 것 전체의 크기가 같을 때에는 부분의 수가 클수록 비율도 큽니다. 전체가 달라도 각각 비율을 계산하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할 것은 수가 아니라 계산한 비율입니다.

오해 바로잡기

- ✗ **수·비율 혼동** 부분의 수가 늘었으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진다.
- ✓ 전체와 부분을 함께 보아 각각의 비율을 계산한다.

자료 A · 돌아온 상자의 수



1 한 공동 배송소는 일회용 포장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상자를 빌려주었다. 운영팀은 상자를 더 많이 회수하려고 반납 방식을 바꾸어 보기로 했다. 이때 '기한 내 반납률'은 **각 시험 주간에 빌려준 상자 중, 빌려준 날부터 7일 안에 돌아온 상자의 비율**로 정했다. 같은 상자를 한 시험 주간에 두 번 빌려주는 일은 없었다.

2 첫째 주에는 배송소 한 곳에서만 상자를 반납받았고, 별도 안내 문자는 보내지 않았다. 둘째 주에는 다른 건물에 반납함 한 곳을 추가하고, 빌려준 지 닷새째 되는 날에 안내 문자도 보냈다. 두 시험 주간의 이용자가 같은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모든 상자는 빌려준 날부터 7일이 지난 뒤에 기한 내 반납 여부를 집계했다.

> **낱말 풀이** 집계: 수나 자료를 모아서 셈함.

3 결과는 아래와 같다. 직원 한 사람은 "돌아온 상자가 9개 늘었으니 반납률도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운영팀은 빌려준 상자의 수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고 답했다.

구분	빌려준 상자	7일 안에 돌아온 상자
첫째 주	60개	36개
둘째 주	90개	45개

4 운영팀은 둘째 주의 반납률이 첫째 주보다 낮다고 해서 반납함 추가나 안내 문자가 효과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두 방법을 함께 바꾸었고 이용자 구성이 같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둘째 주의 반납률이 더 낮았다'는 결과와 '새 방법 때문에 반납률이 낮아졌다'는 설명은 구별해야 했다.

5 별도로 둘째 주 이용자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30명 중 24명은 "새 반납함이 생겨 반납 장소를 고르기 편해졌다."라고 답했다. 운영팀은 이를 **응답자의 반납 장소 선택 편의에 관한 의견**으로 정리했다. 응답하지 않은 이용자의 의견은 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편하다는 응답이 그 사람이 실제로 기한 안에 반납했다는 기록을 뜻하지도 않았다.

6 다음 시험에서는 안내 문자를 보내는 시점을 같게 두고 반납함 유무만 다르게 하되, 이용자의 구성 등 다른 조건도 가능한 한 비슷하게 맞추기로 했다. 운영팀은 기한 내 반납률과 장소 선택의 편의를 구별해 기록하려 한다. 상자를 많이 되찾는 일, 빌려준 수에 비해 제때 돌아오는 비율을 높이는 일, 이용자가 반납하기 편하게 느끼는 일은 연결될 수 있지만 같은 결과는 아니기 때문이다.

01

이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회수된 상자 수가 늘었다는 사실을 반납률이 높아졌다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② 편하다는 설문 응답을 근거로 실제 반납 행동의 변화를 평가해야 한다.

③ 수·비율·편의 의견을 구별하고, 다른 조건까지 살펴 효과를 판단해야 한다.

④ 조건을 통제한 다음 시험의 계획을 반납률을 높인 실제 성과로 받아들여야 한다.

02

3문단의 자료를 바르게 읽은 것은?

① 기한 내 반납률은 첫째 주 60%, 둘째 주 50%로 낮아졌다.

② 돌아온 상자가 9개 늘었으므로 기한 내 반납률도 높아졌다.

③ 둘째 주의 기한 내 반납률은 첫째 주와 같은 60%로 유지되었다.

④ 빌려준 상자 수가 달라 두 주의 기한 내 반납률 차이는 알기 어렵다.

03

4문단이 3문단의 자료 해석에 덧붙이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자 수를 다시 집계해야 반납률이 낮아졌는지 비교할 수 있다고 본다.

② 두 방법 중 안내 문자의 영향을 확인한 뒤 반납률의 원인을 설명한다.

③ 반납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인 판단도 보류해야 한다고 본다.

④ 두 주의 반납률 차이는 확인되지만 그 원인을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본다.

04

6문단의 다음 시험 계획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문자 시점과 반납함 유무를 함께 달리해 방법별 영향을 나누어 보려 한다.

② 문자 시점은 같게, 반납함 유무는 다르게 하여 반납함의 효과를 살피려 한다.

③ 설문에 나타난 장소 선택의 편의를 실제 반납 행동에 관한 기록으로 삼으려 한다.

④ 다른 조건을 비슷하게 맞추면서 장소 선택의 편의는 조사 항목에서 제외하려 한다.

05

다음 해석은 ① 누구의 응답인지(대상)와 ② 무엇에 대한 응답인지(내용)를 잘못 옮겼습니다. 표에 각각 바르게 쓰고, 해석을 한 문장으로 고쳐 쓰세요.

> "둘째 주 이용자 중 80%는 새 반납함 덕분에 상자를 기한 안에 반납했다."

조건

- 5문단의 설문에 실제로 응답한 사람의 범위를 쓸 것.
- 80%가 어떤 응답의 비율인지 쓸 것.

고칠 곳	해석에 쓰인 말	글에 따른 바른 내용
대상		
결과(응답 내용)		

고쳐 쓴 문장: _____

06

다음 두 판단을 각각 '글과 일치하지 않음' 또는 '글만으로 알 수 없음'으로 판정하고, 근거를 쓰세요.

판단	판정	근거
(1) 둘째 주의 기한 내 반납률은 첫째 주보다 높다.	☐ 글과 일치하지 않음 ☐ 글만으로 알 수 없음	
(2) 새 반납함은 기한 내 반납률을 높이는 데 아무 효과가 없다.	☐ 글과 일치하지 않음 ☐ 글만으로 알 수 없음	

조건 (1)은 표의 수치를, (2)는 비교 조건을 근거로 쓸 것.

묶음 2 조건을 끝까지 적용하기

이 묶음에서 던질 질문 **조건을 모두, 끝까지 적용했나?**

용어 약속

공통 조건	해당 판단을 받으려는 대상이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
추가 조건	특정 대상에 더 적용되는 조건
예외	일반 규칙과 다르게 처리하도록 따로 정한 경우
조건 변경	기존 조건의 일부를 새 조건으로 바꾸는 것
처리 순서	여러 단계가 어떤 차례로 이루어지는지 나타낸 것

Q03 조건 하나를 만족하면 결과도 바로 정해지나요?

답 **글이 요구한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말만으로 신청서를 낸 모든 사람이 선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선정에 필요한 다른 조건이 따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비유 자물쇠가 두 개 달린 문은 열쇠 하나만으로 열 수 없습니다. 두 열쇠가 모두 있어야 하듯, 함께 요구된 두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자격 확인까지이며, 실제 규칙에서는 자격을 얻은 뒤에도 순서와 수량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근거 “신청서를 낸 사람 중, 안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장비를 빌려준다.”에서는 신청과 교육 이수가 모두 필요합니다. 교육을 받았어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했어도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이 규칙에 따른 대여 대상이 아닙니다.

> **낱말 풀이** 이수: 정해진 교육 과정을 마침.

신청과 교육 이수 · 두 조건 모두 필요

신청 / 교육	교육 이수 ○	교육 이수 ×
신청 ○	✓ 대여 대상	✗ 대여 대상 아님
신청 ×	✗ 대여 대상 아님	✗ 대여 대상 아님

○○인 한 칸만 대여 대상

헷갈리지 말 것 글에 없는 조건을 보태서도 안 됩니다. '교육 이수'가 조건이라고 해서 '매번 다시 교육받기'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바로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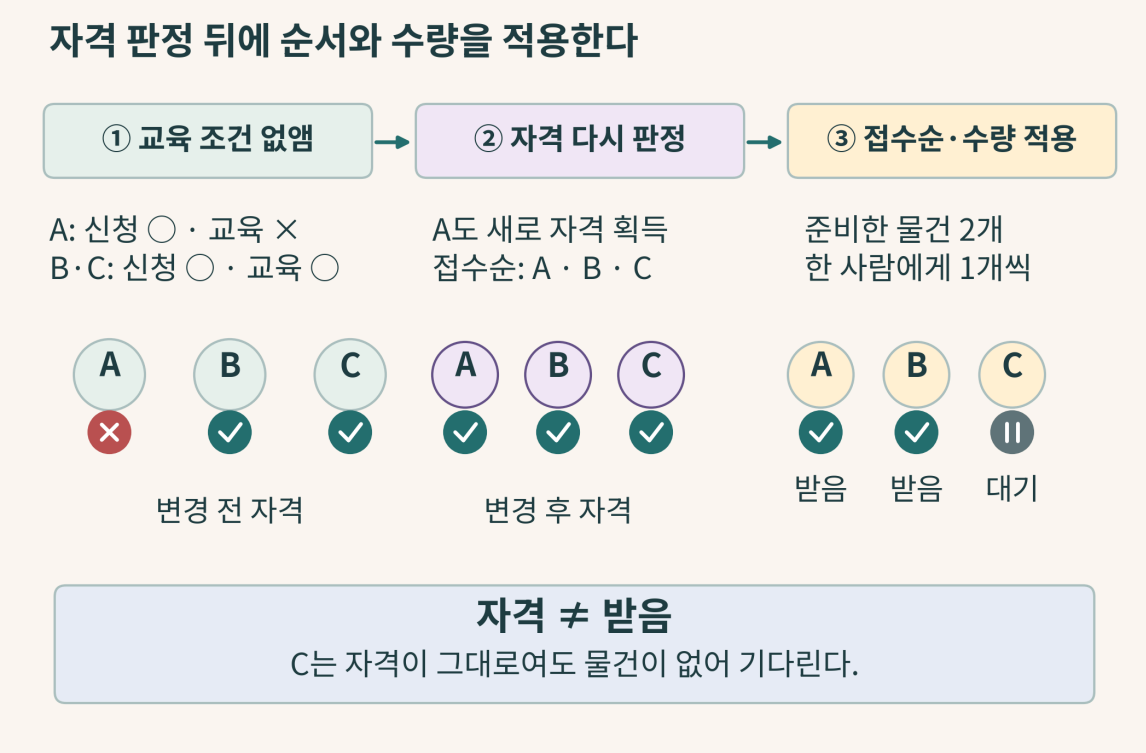
- ✗ **조건 빠뜨림·보탬** 조건 하나를 만족하면 나머지 조건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 ✓ 글이 요구한 조건은 모두 확인하고 없는 조건은 보태지 않는다.

Q04 규칙 한 줄이 바뀌면 앞에서 낸 답은 전부 달라지나요?

답 **자격은 바뀐 조건과 관련된 사람만 다시 판정하지만, 실제로 받는지는 다른 사람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격이 그대로인 사람도 앞사람의 자격 변화에 따라 순서와 남은 수량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대로인 조건은 계속 적용합니다.

비유 급식에서 번호표 순서대로 한정된 후식을 나눌 때, 내 앞 번호의 사람이 줄에 합류하면 내 차례 전에 후식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앞사람의 변화가 내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데까지만 맞으며, 자료에서는 새치기가 아니라 자격을 확인한 뒤 정해진 접수순을 적용합니다.

근거 "신청서를 내고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대상자가 많으면 접수순으로 대여한다."에서 교육 조건을 없애더라도 신청 조건과 접수순 규칙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때문에 제외되던 사람이 새로 대여 대상에 들어오면, 뒤에 신청한 사람의 실제 대여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말 것 새로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물건을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량과 처리 순서가 따로 있으면 그것까지 적용해야 합니다.

오해 바로잡기

- ✗ **순서·수량 무시** 자격만 얻으면 접수순과 수량에 관계없이 물건을 받는다.
- ✓ 자격을 확인한 뒤 접수순과 남은 수량까지 적용한다.

자료 B · 씨앗을 나누는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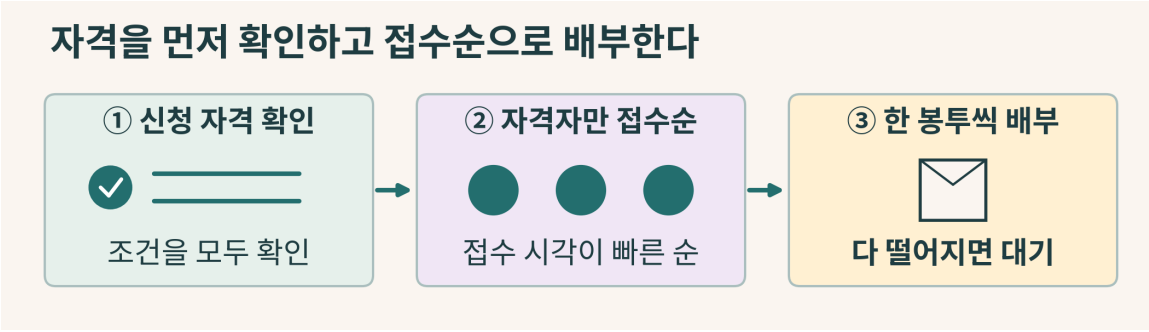
[1] 한 마을 씨앗 나눔실은 상추 씨앗을 작은 봉투에 나누어 준다. 이번 배부에서는 한 사람에게 한 봉투만 준다. 운영팀은 씨앗을 키울 장소를 정해 둔 사람에게 나누어 주되, 처음 신청하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게 하려 했다.

[2] 이번 배부의 신청 자격은 두 조건으로 정했다. 모든 신청자는 **신청서에 재배 장소를 적어야 한다.** 지난번 씨앗을 받은 사람은 **지난번 재배 기록도 제출해야 한다.** 처음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지난번 재배 기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처음 신청하는 사람도 재배 장소는 적어야 한다.

[3] 신청 자격을 확인한 다음에는 **자격을 갖춘 신청자만 접수 시각이 빠른 순서로** 줄을 세운다. 한 사람씩 한 봉투를 주다가 준비한 씨앗이 떨어지면, 뒤의 사람은 '자격은 충족했으나 이번 배부를 기다림'으로 처리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 대기 줄에도 넣지 않는다.

[4] 아래는 접수 현황의 전부다. '제출'은 이번 배부 때 지난번의 재배 기록을 제출했다는 뜻이다. 처음 신청하는 사람의 '해당 없음'은 제출할 지난번 기록이 없다는 뜻이다. 준비한 씨앗은 두 봉투이며, 이 네 사람 외의 신청자나 추가 씨앗은 없다.

신청자	접수 시각	지난번 씨앗을 받았는가	이번 신청서의 재배 장소	지난번 재배 기록
갑	09:00	처음 신청	적지 않음	해당 없음
을	09:03	받음	적음	제출
병	09:05	처음 신청	적음	해당 없음
정	09:07	받음	적음	미제출



[5] 한 직원은 갑이 가장 먼저 신청했으니 첫 봉투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접수순 규칙보다 신청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처음 신청한다는 이유로 재배 장소 작성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6] 운영팀은 앞으로 규칙을 바꿀 때, 어떤 조건이 바뀌었는지 신청자에게 분명히 알리기로 했다. 접수 시각과 준비 수량이 같아도 신청 자격이 달라지면 실제로 씨앗을 받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누군가 새로 자격을 얻어도 앞사람들에게 씨앗이 모두 배부되면 그 사람은 기다리게 된다.

07

현재 규칙과 접수 현황에 따라 이번에 씨앗을 받는 사람은?

① 갑·을

② 을·병

③ 병·정

④ 을·정

08

2문단의 규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재배 장소를 씨앗을 받은 뒤에 적어 낼 수 있다.

② 지난번 씨앗을 받은 사람은 장소 대신 재배 기록을 내면 자격을 얻는다.

③ 접수 시각이 빠른 이전 수령자는 재배 기록을 내지 않아도 자격을 얻는다.

④ 처음 신청하는 사람도 장소는 적어야 하며, 지난번 기록만 내지 않아도 된다.

09

자료 B의 원래 규칙에서 다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이 재배 장소 조건만 바꾸었다. 접수 현황과 씨앗 두 봉투 등 나머지 조건은 자료 B와 같다. 이번에 씨앗을 받는 사람은?

> 재배 장소는 씨앗을 받은 뒤에 적어 내도 된다. 신청할 때에는 적지 않아도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다.

① 갑·을

② 을·병

③ 갑·정

④ 병·정

10

자료 B의 원래 규칙에서 다시 출발하여, 이번에는 지난번 재배 기록 제출 조건만 없앴다. 재배 장소 조건·접수 현황·씨앗 두 봉투는 그대로다. 이를 바르게 판단한 것은?

① 갑은 장소를 적지 않았어도 가장 먼저 접수했으므로 을보다 먼저 씨앗을 받는다.

② 정은 기록을 내지 않아도 자격이 생기므로 병보다 앞서 두 번째 봉투를 받는다.

③ 정은 새로 자격을 얻지만, 두 봉투는 먼저 접수한 을·병에게 돌아가 기다린다.

④ 병은 제출할 지난번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번 변경 뒤에는 접수순 배부에서 제외된다.

11

갑이 현재 규칙에서 씨앗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쓰고, 3문단의 '자격은 충족했으나 이번 배부를 기다림'과 갑의 처리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세요.

조건 갑이 충족하지 못한 조건을 밝히고, 접수 순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쓸 것.

(1) 갑이 충족하지 못한 조건: _____

(2) 기다리는 사람과의 차이: _____

12

문항 09의 변경 규칙에 따라 병의 결과가 달라지는 과정을 두 단계로 설명하세요.

조건

- 병 자신의 신청 자격이 달라졌는지 쓸 것.
- 다른 신청자의 자격 변화와 씨앗 수량을 연결해 쓸 것.

(1) **병 자신** _____

(2) **다른 신청자·수량** _____

묶음 3 다른 기준을 함께 따지기

이 묶음에서 던질 질문 다른 기준도 함께 보았나?

용어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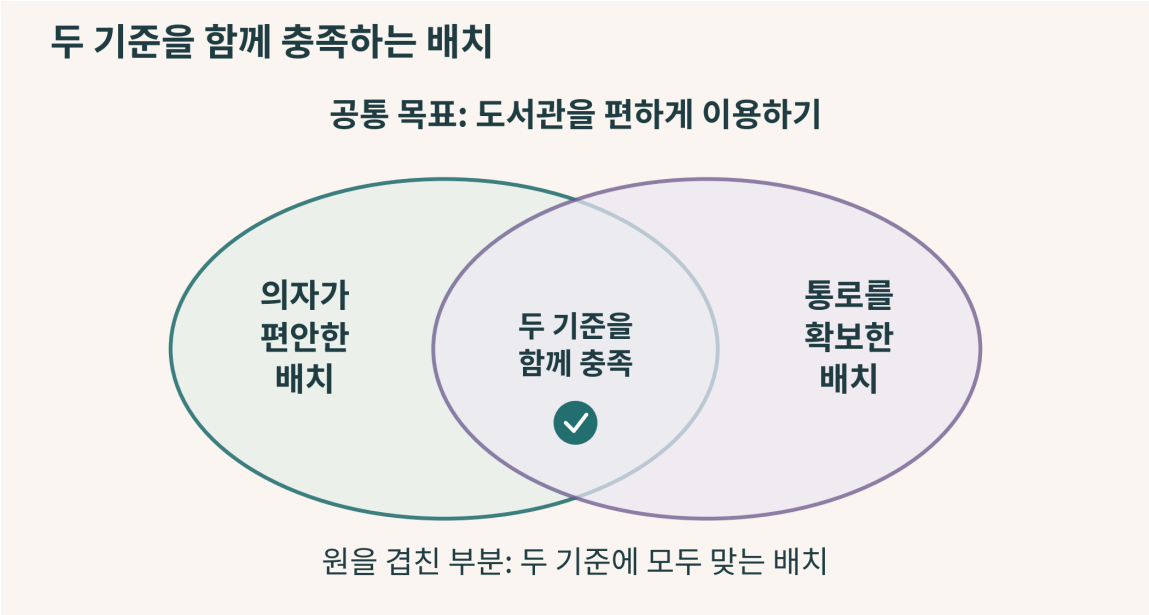
공통 목표	여러 의견이 함께 이루려는 일
판단 기준	어떤 대상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점
관점	같은 대상을 바라보는 입장
측정 항목	조사나 시험에서 실제로 재거나 확인한 대상
적용 범위	얻은 결과를 말할 수 있는 대상·시간·상황의 범위

Q05 서로 다른 기준을 말하면 두 의견은 반대인가요?

답 **무엇에는 동의하고 무엇을 더 요구하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목표가 같아도 중요하게 보는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기준을 더 살피자는 말은 다른 기준을 버리자는 말과 다릅니다.

비유 소풍 장소를 정할 때 모두 즐거운 소풍을 원해도 한 사람은 재미를, 다른 사람은 안전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따지는 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이 정반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비유는 목표와 기준을 구별하는 데까지만 맞으며, 글에서는 각 기준에 관한 실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한 사람은 도서관 의자를 고를 때 오래 앉기 편한지를, 다른 사람은 휠체어가 지나갈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둘 다 도서관을 편하게 이용하자는 목표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의자의 편안함과 통로 확보가 함께 충족되는 배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헷갈리지 말 것 목표가 같다고 해서 모든 구체적 주장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의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각각 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 바로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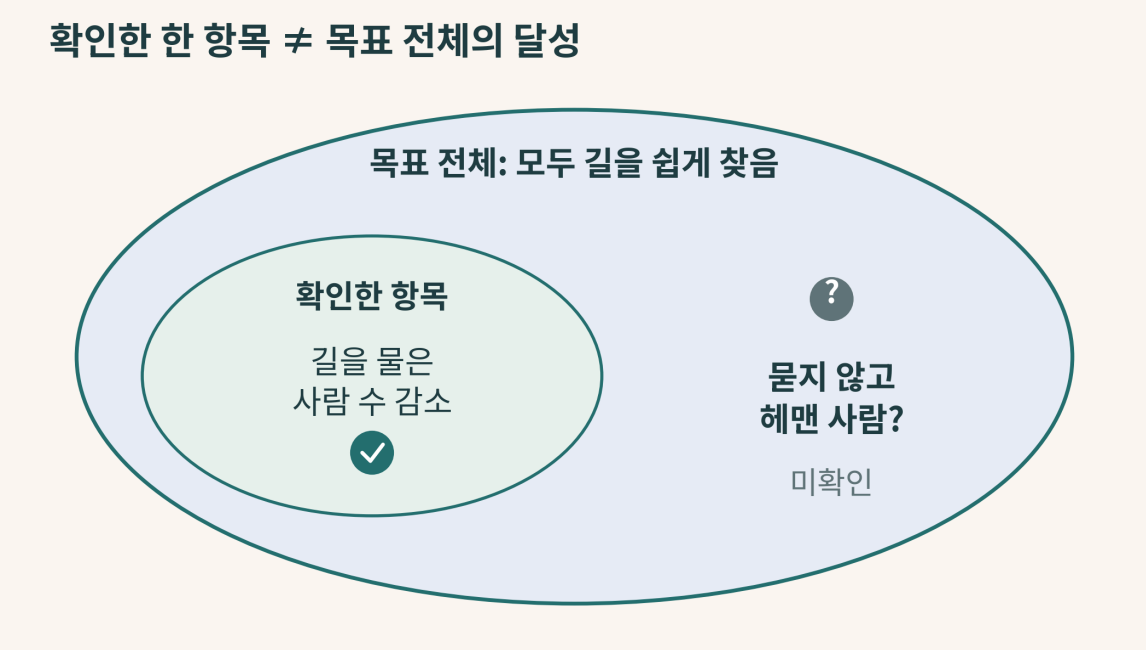
- ✗ **기준 하나만** 다른 기준을 더 살피자는 말은 원래 기준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 ✓ 두 의견이 공유하는 목표와 각각 더 살피는 기준을 구별한다.

Q06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도 되나요?

답 **무엇을 확인한 결과인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목표 전체와 측정 항목 하나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한 시간과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면 결과를 넓혀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유 책상 위만 깨끗하다고 방 전체 청소가 끝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책상 아래와 옷장도 살펴야 합니다. 이 비유는 확인한 부분을 전체로 넓히지 않는 데까지만 맞으며, 글에서는 다른 항목의 상태를 상상하지 않고 실제로 제시된 조사 범위를 따집니다.

근거 길 안내 표지를 바꾼 뒤 길을 묻는 사람이 줄었다고 합시다. 이는 '질문한 사람의 수'에 관한 결과입니다. 길을 묻지 않고 헤맨 사람이 있는지 조사하지 않았다면, 이 결과만으로 '모든 사람이 길을 쉽게 찾았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헷갈리지 말 것 시험 범위가 좁다고 해서 그 안에서 확인한 결과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한 성과는 인정하되, 아직 확인하지 않은 부분을 함께 남깁니다.

오해 바로잡기

- ✗ **범위 넓힘** 한 항목에서 성과가 있으므로 전체 목표도 달성했다.
- ✓ 확인한 항목의 성과를 인정하고 미확인 범위는 남긴다.

자료 C · 산책길의 밤 조명

(가) 관리팀의 제안

가-1 강변 산책길의 관리팀은 밤에도 바닥과 길의 경계를 알아보기 쉬워야 한다고 보았다. 관리팀은 산책길 전체의 밝기를 무조건 높이는 대신, 빛이 필요한 바닥에 닿도록 등갓의 방향을 바꾸는 시안을 제안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같은 지점의 등을 같은 시간 동안 켜고, 등갓의 방향만 바꾸었다.

> **낱말 풀이** 등갓: 전등을 덮어 빛이 나가는 방향을 조절하는 덮개. 시안: 시험 삼아 내놓은 안.



가-2 관리팀은 우선 **밤 8시에 정해진 관찰 위치에서 열 개의 경계 표식을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이를 산책길의 모든 위험을 조사한 결과로 보지는 않았다. 실제 사고 횟수, 늦은 시간의 이용 상황, 다른 구간의 상태는 이번 시험에서 조사하지 않았다.

(나) 인근 주민의 의견

나-1 인근 주민 모임도 사람들이 길의 경계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다만 등에서 나온 빛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불편도 함께 줄여야 한다고 보았다. 주민들은 길에서 본 밝기만으로 주거 공간의 불편을 대신 판단하지 말고, **같은 시각에 정해 둔 창문 관찰점에서 빛이 직접 들어오는지도** 확인하자고 제안했다.

나-2 주민 모임은 모든 등을 끄자고 주장하지 않았다. 경계를 알아보는 데 필요한 조건을 지키면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줄일 수 있다면 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밤 8시 이후의 불편은 이번 시험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험 기록

같은 열 개의 경계 표식과 같은 여섯 개의 창문 관찰점을 밤 8시에 각각 조사했다. 아래 결과는 해당 위치와 시각에서의 관찰 기록이다.

관찰 항목	변경 전	등갓 방향 변경 후
구별할 수 있었던 경계 표식	10개 중 8개	10개 중 8개
빛이 직접 들어온 창문 관찰점	6곳 중 5곳	6곳 중 2곳

(다) 시험 뒤의 공동 의견

다-1 두 모임은 시험한 조건에서 경계 표식을 구별한 수가 줄지 않았고, 빛이 직접 들어온 창문 관찰점은 줄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등갓 방향을 조정하는 시안을 더 살펴볼 근거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경계 표식 두 개는 여전히 구별되지 않았고, 빛이 직접 들어온 창문 관찰점 두 곳도 남았다.

다-2 두 모임은 구별되지 않은 표식 주변과 빛이 들어온 창문 위치를 더 살피고, 늦은 시간에도 같은 관찰을 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시안의 성과를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았거나 확인하지 못한 부분까지 살펴 조정하려는 계획이다.



13

(가)와 (나)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관리팀은 창문에 들어온 빛을, 주민 모임은 길의 경계를 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② 주민 모임은 경계 확인에 동의하지만 조명을 끄는 방안만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③ 두 모임은 경계 확인을 중시하므로 창문의 관찰 결과도 같은 항목으로 다룬다.

④ 경계 확인에 동의하며, 주민 모임은 집 안의 빛 불편도 살피자고 한다.

14

시험 기록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① 등갓 방향을 바꾼 뒤 같은 산책길에서 일어난 실제 사고 횟수가 줄었다.

② 같은 여섯 창문 중 빛이 직접 들어온 곳이 다섯 곳에서 두 곳으로 줄었다.

③ 변경 뒤 산책길의 다른 구간에서도 경계 표식이 전보다 더 잘 보이게 되었다.

④ 밤 8시보다 늦은 시간에도 같은 창문 관찰점의 빛 불편이 줄어들었다.

15

(다)의 2문단(다-2)에서 늦은 시간에도 관찰하려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밤 8시의 관찰 기록에 계산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을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② 경계 표식보다 창문의 밝기를 살피는 일로 공동 목표를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③ 밤 8시 외에 더 늦은 시간에도 이번 시안의 관찰 결과가 유지되는지 살피기 위해서이다.

④ 밤 8시 이후의 사고 감소를 확인했으므로 그 원인을 더 조사하려 하기 때문이다.

16

다음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계 표식을 구별한 수가 그대로이므로 조명을 바꾼 시안은 아무 성과가 없다."

① 경계 표식의 수만 비교하고, 창문으로 직접 들어온 빛이 줄어든 성과를 빠뜨렸다.

② 표식 수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산책길의 위험이 줄었다는 성과를 부정했다.

③ 주민 모임이 조명을 끄는 시안을 검토하자고 한 점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④ 밤 8시의 시험 기록을 근거로 늦은 시간의 경계 표식도 더 잘 보이는 점을 빠뜨렸다.

17

(다)의 평가에서 확인한 성과 한 가지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한 가지를 쓰세요.

조건 둘 다 시험 기록의 수치로 뒷받침할 것. 조사하지 않은 사고 횟수는 쓰지 말 것.

성과: _____ (수치: _____)

남은 문제: _____ (수치: _____)

18

다음 해석을 성과와 한계를 함께 담은 두 문장으로 고쳐 쓰세요.

> "새 조명은 산책길의 모든 위험과 주민의 빛 불편을 완전히 없앴으므로 더 조사할 필요가 없다."

조건

- (1)에 시험 시각과 두 관찰 항목의 변화를 쓸 것.
- (2)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범위를 각각 하나 이상 쓸 것.

(1) _____

(2) _____

묶음 4 근거를 보존하며 해석 고치기

이 묶음에서 던질 질문 확인된 사실은 남기고 고쳤나?

용어 약속

출처	누가·언제·어떻게 만든 자료인지에 관한 정보
신뢰성	자료를 믿을 수 있는 정도. 작성자·작성 시기·작성 방법 등을 살펴 판단한다.
추론	제시된 단서를 연결해 직접 적히지 않은 내용을 판단하는 것
오독	글의 내용이나 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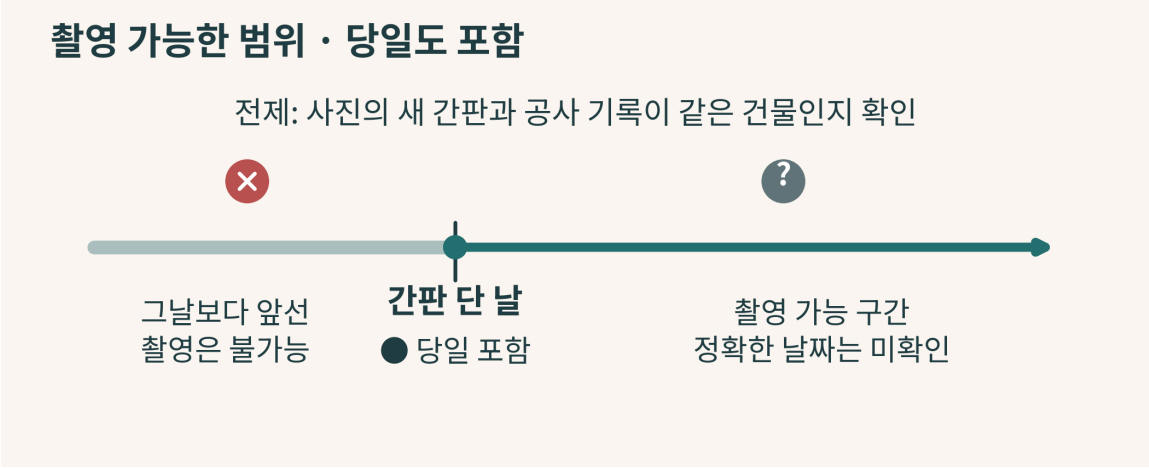
Q07 자료 하나가 더 생기면 모르는 부분이 모두 풀리나요?

답 **새 자료가 실제로 알려 주는 부분만 판단에 더할 수 있습니다.** 사진·목록·회고는 보여 주는 내용과 작성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가 하나 늘어도 촬영 날짜나 인물의 의도처럼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남을 수 있습니다.

> **낱말 풀이** 회고: 지난 일을 돌이켜 말함.

비유 탐정이 새 단서를 얻으면 용의자의 범위를 좁힐 수 있지만 범인이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비유는 단서가 판단 범위를 좁힌다는 데까지만 맞으며, 독해에서는 끝까지 미확인으로 남겨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거 사진 속 건물에 새 간판이 있고, 공사 기록에 그 간판을 단 날짜가 적혀 있다면 사진은 그 날짜보다 앞서 찍히지 않았다고 볼 단서가 생깁니다. 다만 간판을 단 날에 바로 찍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진의 모습과 기록이 같은 건물을 가리키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지 말 것 '오래 기억한 사람의 말은 모두 틀림', '문서라면 모든 내용이 확정됨'처럼 자료 종류만으로 옳고 그름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실제로 담고 있는지 따집니다.

오해 바로잡기

✗ **자료 넘어 확정** 새 자료가 생겼으므로 날짜와 목적도 확정할 수 있다.

✓ 새 자료가 밝힌 범위만 판단하고 나머지는 미확인으로 남긴다.

Q08 틀린 해석에서 낱말 하나만 바꾸면 고친 것이 되나요?

답 **잘못 읽은 지점을 찾아, 확인된 사실은 남기고 근거 없는 해석을 고쳐야 합니다.** '모두'를 '일부'로 바꾸더라도 원인을 잘못 만든 부분이 남아 있으면 완전한 수정이 아닙니다.

비유 찢어진 옷은 찢어진 곳을 꿰매야지 단추만 바꾼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멀쩡한 부분까지 잘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 비유는 고칠 곳과 남길 곳을 가린다는 데까지만 맞으며, 해석을 고친 뒤에는 글의 근거와 다시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근거 "행사장이 붐비는 사진이 있으므로 가격을 내려 손님이 늘었음이 증명된다."에는 사진으로 볼 수 있는 모습과, 사진만으로는 알 수 없는 가격·증가·원인이 섞여 있습니다. '모든 손님'을 '일부 손님'으로 고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진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가격 변화나 이전보다 손님이 늘었는지는 이 사진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근거의 범위에 맞춰야 합니다.

잘못 읽은 지점	예: 행사장 사진 해석	고치는 방법
대상	사진 속 사람을 행사장 손님으로 단정함	사진으로 확인한 '모여 있는 사람들'로 씀
범위	한 장의 모습으로 이전보다 손님이 늘었다고 함	사진에 찍힌 장면의 범위로 제한함
관계	가격을 내려 사람이 늘었다고 연결함	가격 변화와 증가의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씀
단정하는 표현	'증명된다'라고 확정함	근거에 맞게 '볼 수 있다' 또는 '확인되지 않았다'로 고침

문장을 나누어 확인·미확인·단정을 가린다

✓ 행사장이 붐비는 사진이 있으므로	사진에 보이는 모습
? 가격을 내려	가격 변화·원인은 미확인
? 손님이 늘었음이	이전보다 증가했는지 미확인
✗ 증명된다	근거보다 강한 단정

고쳐 쓴 문장 사람들이 모인 모습은 보이지만, 가격 변화나 이전보다 손님이 늘었는지는 사진만으로 모른다.

헷갈리지 말 것 해석을 고칠 때 글이 확인해 준 사실까지 지우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을 '모른다'로 바꾸는 것도 정확한 읽기가 아닙니다.

오해 바로잡기

- ✗ **사실 지움** 틀린 해석을 고치려면 확인된 사실까지 모른다고 바꾸면 된다.
- ✓ 확인된 사실은 남기고 근거 없는 관계와 단정을 고친다.

자료 D · 사진 한 장의 설명을 고치다



1 마을 기록 전시를 준비하던 편집팀은 시장 광장 사진 한 장에 설명을 붙이려 했다. 사진에는 시계가 달린 탑과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이 보였다. 원본 사진의 뒷면에는 촬영 날짜나 행사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 사진은 정지된 한 장면이며, 소리나 앞뒤 상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2 편집팀이 처음 받은 목록에는 사진 제목이 '새 시계탑 완공 축하 모임'으로 적혀 있었다. 목록은 촬영 당시의 기록이 아니라, 사진을 정리한 사람이 여러 해 뒤에 붙인 제목을 모은 것이었다. 목록 작성자는 이 제목을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3 주민 한 사람은 인터뷰에서 "내 기억에는 시계탑을 새로 세운 뒤 첫 장날에 사람들이 저렇게 모였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그날이 완공을 축하하는 공식 행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편집팀은 이 말을 '주민 한 사람의 회고'로 기록하고, '뒤 첫 장날'이라는 기억을 정확한 촬영일로 바꾸어 적지는 않았다.

> **낱말 풀이** 장날: 장이 서는 날.

4 뒤이어 찾은 시설 장부에는 시계탑의 **종전 탑신은 그대로 두고 시계만 1987년 5월 12일에 교체했다**고 적혀 있었다. 편집팀은 사진 속 시계의 모양이 장부에 함께 그려진 새 시계와 일치하며, 시계를 바꾸기 전에 찍힌 다른 사진과 비교해 탑신이 같음을 확인했다. 이번 판단에서는 장부의 교체 날짜와 사진 속 새 시계의 식별이 정확하다고 전제한다. 다만 장부에는 사진 촬영이나 광장의 모임에 관한 기록이 없었다.

> **낱말 풀이** 종전: 원래 있던 때나 상태. 탑신: 탑의 몸체.

5 편집팀은 시계가 바뀐 일과 시계탑 전체를 새로 세운 일을 구별했다. 주민의 회고는 당시 사람들이 모였다는 정황을 살피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탑 전체의 신축이나 공식 축하 행사를 확정하는 근거는 되지 못했다. 사진도 사람들이 모인 모습을 보여 줄 뿐, 그들이 모인 목적이나 당시의 감정을 직접 알려 주지는 않았다.

6 최종 설명에는 '기존 탑신에 새 시계가 달린 시장 광장과 모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사진은 **1987년 5월 12일 또는 그 이후**에 찍힌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확한 촬영일과 모임의 목적은 미확인으로 남겼다. 기존 목록의 제목은 삭제해 없애지 않고, 여러 해 뒤에 붙인 제목이며 지금은 그대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설명과 함께 별도 기록에 보존하기로 했다.

19

4문단의 시설 장부와 사진 대조가 판단에 더해 주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장부의 새 시계 그림과 광장의 군중으로 보아 사람들이 시계 설치를 축하한 모임으로 볼 수 있다.

② 시계 모양이 장부와 일치하므로 사진이 찍힌 날짜를 1987년 5월 12일 당일로 좁힐 수 있다.

③ 탑신은 그대로 두고 시계만 교체했으며, 사진 속 새 시계로 보아 촬영은 교체일 당일이나 그 이후이다.

④ 탑 신축의 기억이 장부와 달라 사람들이 모였다는 회고도 참고 자료에서 제외할 수 있다.

20

2~4문단에 나온 세 자료(목록·인터뷰·장부)의 성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목록은 촬영 당시의 제목을 옮겼고, 인터뷰와 장부는 그 제목의 유래를 보완한 자료이다.

② 목록은 나중에 붙인 제목이고, 인터뷰는 공식 행사의 기억, 장부는 시설 교체 기록이다.

③ 목록과 인터뷰는 모임의 정황을, 장부는 시계 교체와 해당 사진 촬영의 경위를 기록한 자료이다.

④ 목록은 뒤에 붙인 제목, 인터뷰는 개인의 회고, 장부는 시설 교체 내용을 담은 자료이다.

21

6문단에서 기존 목록 제목을 별도 기록에 남기는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제목의 출처가 불명확해도 목록에 실린 제목이므로 최종 설명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이다.

② 나중에 붙인 제목의 출처와 현재 사실로 확정하기 어려운 한계를 함께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③ 시설 교체 날짜를 적은 장부보다 사진을 직접 분류한 목록의 설명에 더 무게를 두기 위해서이다.

④ 정확한 촬영일은 새 설명에 담고 모임의 목적만 기존 제목으로 보완하여 남기기 위해서이다.

22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서로 다른 자료를 대조해 사진의 설명을 고치고, 확인한 사실과 남은 미확인 사항을 구별한다.

② 제목의 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사진 속 시계의 식별도 보류하고 주민의 기억을 중심에 둔다.

③ 탑 신축의 기억이 장부와 달라 회고는 제외하고, 장부로 촬영일과 모임의 목적을 정리한다.

④ 시계 교체 기록으로 촬영 시기를 좁힌 뒤, 기존 목록의 제목을 보충하여 축하 모임으로 설명한다.

23

다음 해석에서 맞는 부분 한 가지와 근거 없이 확정한 부분 한 가지를 나누어 쓰세요.

> “사진 속 시계는 새것이므로, 사진은 시계를 바꾼 1987년 5월 12일 당일의 공식 축하 행사다.”

조건 맞는 부분에는 4문단에서 확인된 내용을 쓰고, 근거 없이 확정한 부분에는 해석에서 해당하는 말을 그대로 옮겨 쓸 것.

맞는 부분: _____

근거 없이 확정한 부분: _____

24

다음 해석을 글 전체의 중심 내용에 맞게 두 문장으로 고쳐 쓰세요.

> “시설 장부 덕분에 사진의 날짜와 축하 목적을 모두 밝혀냈다. 그래서 주민의 기억과 예전 제목은 아무 가치가 없어 모두 버렸다.”

조건

- (1)에 탑신·시계의 관계와 촬영 시기의 범위를 쓸 것.
- (2)에 미확인 사항과 예전 제목을 보존한 방식을 쓸 것.
- (1)·(2)에서 주민의 회고 전체가 거짓이라고 단정하지 말 것.

(1) _____

_____

(2) _____

_____

정답과 해설

빠른 정답

문항	01	02	03	04	07	08	09	10	13	14	15	16	19	20	21	22
정답	③	①	④	②	②	④	①	③	④	②	③	①	③	④	②	①

서술형 05·06·11·12·17·18·23·24: 해당 해설 참조.

자료 A · 수치와 원인 판단

자료 A · 반납 기록과 설문은 별개

첫째 주 · 상자 60개 중 36개



36 ÷ 60 = 0.6 · 60%

둘째 주 · 상자 90개 중 45개



45 ÷ 90 = 0.5 · 50%

설문 · 응답자 30명



24 ÷ 30 = 0.8
백분율 80%

다른 대상: 응답자
다른 내용:
장소 선택이 편하다는 의견

둘째 주에 함께 바뀐 방법: 반납함 추가 · 안내 문자
이용자 구성이 같았는지도 미확인
반납함만의 효과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다.

해설 01

정답 ③ 3문단은 수와 비율을, 4문단은 관찰된 차이와 원인을, 5문단은 편의 의견과 실제 반납 행동을 구별합니다. 6문단은 이를 묶어 다음 시험에서 조건을 나누어 살피려 합니다.

선택지	오독 표시	왜 틀렸나
①	수·비율 혼동	3문단은 돌아온 수뿐 아니라 빌려준 전체 수도 함께 보아야 한다고 밝힙니다.
②	범위 넓힘	5문단의 편의 의견은 실제 기한 내 반납 행동을 확인한 기록이 아닙니다.
④	자료 넘어 확정	6문단은 다음 시험의 계획이므로 반납률을 높인 실제 성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1~02 · 근거의 범위·수와 비율.

해설 02

정답 ① **근거: 3문단 표.** 첫째 주는 36÷60=0.6, 둘째 주는 45÷90=0.5입니다. 백분율로는 60%, 50%입니다. 돌아온 수는 9개 늘었고 반납률은 60%에서 50%로 낮아졌습니다.

선택지	오독 표시	왜 틀렸나
②	수·비율 혼동	돌아온 수는 늘었지만 빌려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은 낮아졌습니다.
③	수·비율 혼동	둘째 주는 45 ÷ 90 = 0.5이므로 50%입니다.
④	수·비율 혼동	각 주의 전체 수와 반납 수가 있으므로 비율을 계산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2 · 비교의 기준이 되는 전체.

해설 03

정답 ④ 4문단은 낮아진 반납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새 방법의 효과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제한합니다.

선택지	오독 표시	왜 틀렸나
①	사실 지움	3문단의 수치로 반납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재집계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②	원인 덧붙임	두 방법과 이용자 구성의 영향이 분리되지 않아 문자 때문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사실 지움	반납률 차이를 확인했다는 사실까지 지운 판단입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1 · 사실과 인과 관계의 구별.

해설 04

정답 ② 6문단은 문자 시점을 같게 하고 반납함 유무만 달리하며 다른 조건도 비슷하게 맞추려 합니다. 반납함의 효과를 더 분명히 살피려는 계획이지 결과를 미리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지	오독 표시	왜 틀렸나
①	원인 덧붙임	두 방법을 함께 바꾼 비교만으로는 각각의 영향을 나누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6문단은 문자 시점을 같게 하고 반납함 유무만 다르게 합니다.
③	범위 넓힘	편의에 대한 응답과 실제 반납 행동은 구별해 기록할 항목입니다.
④	사실 지움	6문단은 장소 선택의 편의도 기록한다고 밝혔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1 · 원인 판단에 필요한 비교 조건.

해설 05

예시 답

고칠 곳	해석에 쓰인 말	글에 따른 바른 내용
대상	둘째 주 이용자 중 80%	설문에 응답한 30명 중 24명(80%)
결과(응답 내용)	상자를 기한 안에 반납했다	반납 장소를 고르기 편해졌다고 답했다

고쳐 쓴 문장: 설문에 응답한 30명 중 24명, 곧 80%가 반납 장소를 고르기 편해졌다고 답했다.

채점 요소

요소	꼭 들어갈 내용	인정하는 표현	인정하지 않는 표현
대상	설문 응답자 30명 중 24명	설문 응답자의 80%	둘째 주 전체 이용자의 80%
응답 내용	반납 장소를 고르기 편해졌다는 의견	장소 선택이 편해졌다고 답함	실제로 기한 내 반납함
고쳐 쓴 문장	대상과 응답 내용을 연결한 한 문장	응답자 30명 중 24명이 장소 선택이 편해졌다고 답했다	편해서 제때 반납했다는 인과 단정

되돌아볼 개념 질문 01~02 · 조사 대상과 측정 내용.

해설 06

예시 답 (1) 글과 일치하지 않음. 첫째 주 60%, 둘째 주 50%이므로 둘째 주가 더 낮다. (2) 글만으로 알 수 없음. 반납함과 문자를 함께 바꾸었고 이용자 구성도 같았는지 몰라 반납함만의 효과를 분리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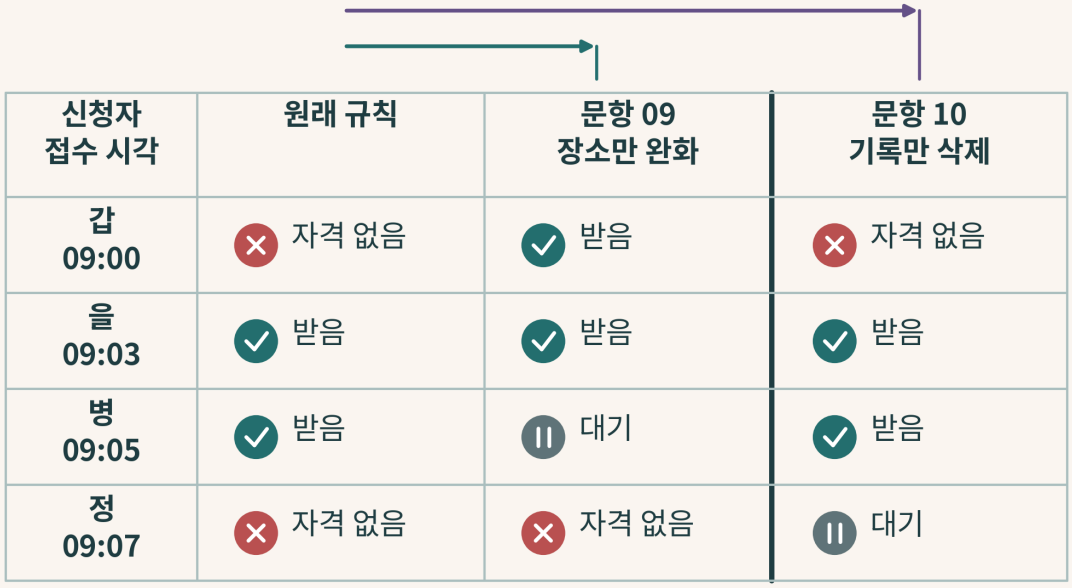
채점 요소

요소	꼭 들어갈 내용	인정하는 표현	인정하지 않는 표현
(1) 판정·근거	글과 일치하지 않음·60%에서 50%로 낮아짐	36/60과 45/90을 비교한 설명	글만으로 알 수 없음
(2) 판정·근거	글만으로 알 수 없음·비교 조건이 분리되지 않음	두 방법을 함께 바꿈 또는 이용자 구성 미확인을 근거로 제시	낮아진 결과만으로 효과 없음이나 효과 있음을 확정

되돌아볼 개념 질문 01 · 글과 일치하지 않는 판단과 글만으로 알 수 없는 판단.

자료 B · 자격에서 실제 배부까지

자료 B · 두 변경은 각각 원래 규칙에서 출발



대기: 자격은 있으나 남은 봉투가 없음

조건 구분	내용
공통 조건	신청서에 재배 장소 작성
추가 조건	이전 수령자는 지난번 재배 기록 제출
예외	처음 신청자는 지난번 재배 기록 제출 면제

해설 07

정답 ② 을은 재배 장소와 지난번 기록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병은 처음 신청하므로 기록 제출은 필요 없고 재배 장소를 적었으므로 자격이 있습니다. 두 봉투는 을·병에게 배부됩니다. **근거: 2문단 조건·3문단 순서·4문단 접수표.**

선택지	오독 표시	왜 틀렸나
①	조건 빠뜨림·보탬	갑은 공통 조건인 재배 장소 작성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③	조건 빠뜨림·보탬	정은 이전 수령자에게 요구되는 재배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④	조건 빠뜨림·보탬	자격 없는 정을 넣고 자격을 갖춘 병을 빠뜨렸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3~04 · 자격·순서·수량의 연결.

해설 08

정답 ④ 처음 신청하는 사람에게 면제되는 것은 지난번 재배 기록 제출뿐입니다. 재배 장소 작성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근거: 2문단.**

선택지	오독 표시	왜 틀렸나
①	조건 빠뜨림·보탬	현재 규칙은 처음 신청하는 사람도 신청서에 장소를 적도록 요구합니다.
②	조건 빠뜨림·보탬	재배 기록은 장소 작성을 대신하지 않고 이전 수령자에게 더해지는 조건입니다.
③	조건 빠뜨림·보탬	빠른 접수는 기록 제출 조건을 면제하는 예외가 아닙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3 · 예외의 적용 범위.

해설 09

정답 ① **근거: 2~4문단과 문항 09의 변경 조건.** 장소 조건이 바뀌면 갑도 자격을 얻습니다. 원래 자격이 있던 을·병은 계속 자격이 있고, 정은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여전히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의 접수순은 갑→을→병이며 두 봉투는 갑·을에게 돌아갑니다.

선택지	오독 표시	왜 틀렸나
②	순서·수량 무시	갑이 새로 자격을 얻어 을보다 앞 순서에 들어오므로 병은 기다립니다.
③	조건 빠뜨림·보탬	정에게 요구되는 기록 제출 조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④	조건 빠뜨림·보탬	정은 기록 미제출로 자격이 없으며 자격 있는 갑·을이 병보다 앞섭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4 · 변경 조건과 유지 조건.

해설 10

정답 ③ **근거: 2~4문단과 문항 10의 변경 조건.** 이 문항은 문항 09의 변경 규칙에 덧붙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규칙에서 기록 조건만 없앱니다. 자격자는 을·병·정이며, 두 봉투는 을·병에게 배부되고 정은 기다립니다.

선택지	오독 표시	왜 틀렸나
①	조건 빠뜨림·보탬	원래 규칙에서 기록 조건만 없앴으므로 갑의 장소 미기재는 그대로 남아 자격이 없습니다.
②	순서·수량 무시	정은 09:07에 접수하여 09:05에 접수한 병보다 뒤이며 두 봉투는 을·병에게 배부됩니다.
④	조건 빠뜨림·보탬	병은 처음 신청하므로 원래부터 지난번 기록 제출을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4 · 서로 독립적인 조건 변경.

해설 11

예시 답 갑은 재배 장소를 적지 않아 신청 자격이 없으므로 접수순 배부 줄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격을 갖췄지만 앞사람들에게 씨앗이 모두 배부되어 기다리는 사람과는 다르다.

채점 요소

요소	꼭 들어갈 내용	인정하는 표현	인정하지 않는 표현
(1) 조건	재배 장소 미기재로 자격 없음	장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접수 시각이 늦음
(2) 처리 차이	갑은 자격이 없어 줄에 못 들고, 대기는 자격은 있지만 수량이 부족함	자격 없음과 자격 취득 뒤 수량 부족을 구별	갑도 자격은 있으나 씨앗이 떨어짐

되돌아볼 개념 질문 03~04 · 서로 다른 탈락·대기 이유.

해설 12

예시 답 (1) 병은 처음 신청하며 재배 장소도 적었으므로 원래와 변경 뒤 모두 자격이 있다. (2) 장소를 적지 않은 갑이 새로 자격을 얻어 가장 앞에 들어오면서, 두 봉투가 갑·을에게 먼저 배부되어 병은 기다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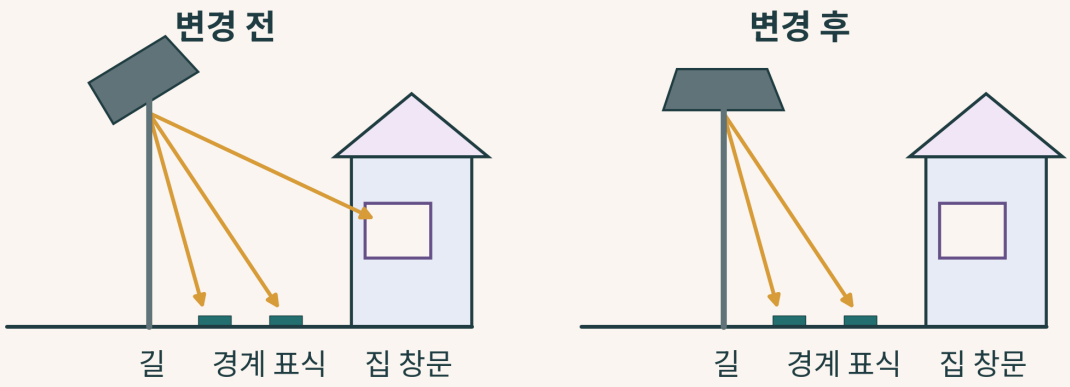
채점 요소

요소	꼭 들어갈 내용	인정하는 표현	인정하지 않는 표현
(1) 병 자신	처음 신청하고 장소를 적어 변경 전후 자격 유지	병 자신의 자격 조건은 계속 충족함	병은 자격을 잃음
(2) 다른 신청자·수량	갑의 새 자격·접수순·두 봉투 소진·병 대기	갑·을이 먼저 두 봉투를 받아 병은 기다림	정이 먼저 받음 또는 병의 접수 시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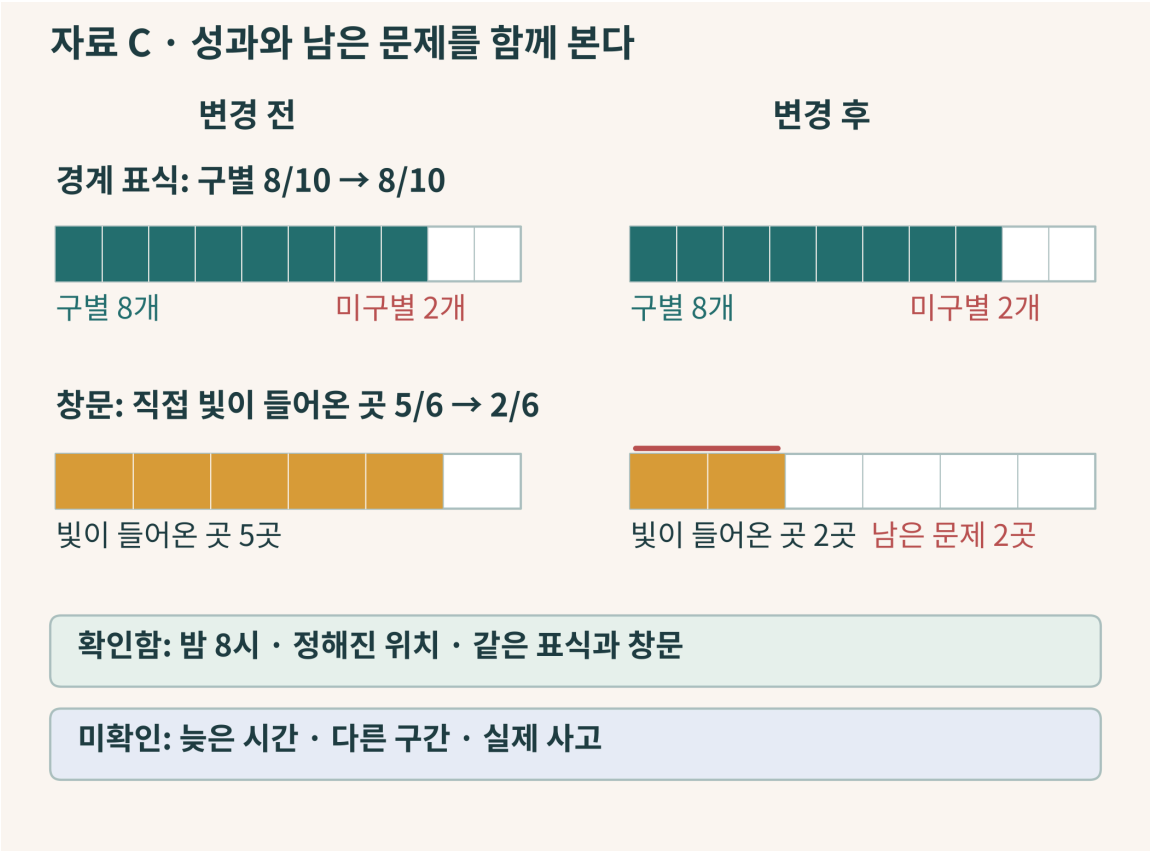
되돌아볼 개념 질문 04 · 다른 대상의 변화가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

자료 C · 성과와 남은 과제

등갓 방향 변경 전·후 · 빛의 경로 모식도



방향 조정의 원리를 보여 주는 모식도이며 실제 배치·수량은 아니다.
변경 후에도 관찰점 6곳 중 2곳에는 빛이 들어왔다.
경계 표식이 보이는 정도는 변경 전후가 같다(8/10).



해설 13

정답 ④ 두 글은 관점의 공통점(경계 확인)과 차이점(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가집니다. 나-1은 경계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공통점과 주거 공간의 빛 불편도 줄여야 한다는 추가 기준을 함께 밝힙니다.

선택지	오독 표시	왜 틀렸나
①	기준 하나만	두 모임이 강조한 기준을 뒤바꾸었습니다.
②	기준 하나만	주민 모임은 필요한 경계 확인을 유지하며 창문 빛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③	기준 하나만	경계 표식 확인과 창문에 들어온 빛은 따로 관찰하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5 · 공통점과 추가 요구.

해설 14

정답 ② **근거: 시험 기록 표.** 같은 여섯 창문 관찰점 중 빛이 직접 들어온 곳이 5곳에서 2곳으로 세 곳 줄었습니다.

선택지	오독 표시	왜 틀렸나
①	범위 넓힘	실제 사고 횟수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③	범위 넓힘	관찰한 위치의 결과를 조사하지 않은 다른 구간까지 넓혀 말했습니다.
④	범위 넓힘	시험 시각은 밤 8시이며 더 늦은 시간의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6 · 측정 항목·대상·시각의 보존.

해설 15

정답 ③ 이번 시험은 밤 8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2는 그 밖의 늦은 시간에도 결과를 확인하려 합니다.

선택지	오독 표시	왜 틀렸나
①	자료 넘어 확정	계산 오류가 있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②	기준 하나만	표식과 창문을 함께 살피려는 계획이며 경계 확인 목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④	범위 넓힘	늦은 시간의 사고 감소는 이번 시험에서 확인한 내용이 아닙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6 · 시간 범위를 넓힐 때 필요한 추가 근거.

해설 16

정답 ① **근거: 나-1·시험 기록·다-1.** 표식 수가 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과 없음'을 단정하면, 두 번째 기준인 창문으로 직접 들어온 빛 감소를 빠뜨립니다.

선택지	오독 표시	왜 틀렸나
②	범위 넓힘	같은 표식 수로 산책길의 위험 감소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③	기준 하나만	주민 모임은 조명을 끄자는 시안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④	범위 넓힘	밤 8시의 기록으로 조사하지 않은 늦은 시간의 표식 상태까지 판단했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5~06 · 여러 판단 기준의 함께 적용.

해설 17

예시 답 성과는 빛이 직접 들어온 창문 관찰점이 5곳에서 2곳으로 줄어든 것이다. 남은 문제는 아직도 창문 관찰점 2곳에 빛이 직접 들어온다는 점이다.

채점 요소

요소	꼭 들어갈 내용	인정하는 표현	인정하지 않는 표현
성과·수치	빛이 직접 들어온 창문이 5곳에서 2곳으로 감소	표식 구별 수가 8/10으로 유지됨 또는 두 결과를 함께 씀	사고가 줄어듦
남은 문제·수치	창문 2곳에 빛이 들어옴 또는 표식 2개가 구별 안 됨	6곳 중 2곳·10개 중 2개라는 표현	늦은 시간 미조사만 쓰고 수치상 남은 문제를 쓰지 않음

되돌아볼 개념 질문 06 · 확인한 성과·해결되지 않은 문제·미확인의 구별.

해설 18

예시 답 (1) 밤 8시의 관찰에서 구별할 수 있는 경계 표식은 열 개 중 여덟 개로 유지되었고, 빛이 직접 들어온 창문은 여섯 곳 중 다섯 곳에서 두 곳으로 줄었다. (2) 구별되지 않은 표식과 빛이 들어온 창문이 남아 있으며, 늦은 시간의 결과와 실제 사고 변화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채점 요소

요소	꼭 들어갈 내용	인정하는 표현	인정하지 않는 표현
(1) 시각·표식	밤 8시·표식 8/10 유지	밤 8시 열 개 중 여덟 개로 같음	시각 누락 또는 표식 10개 확인
(1) 창문	빛이 직접 들어온 창문 5/6에서 2/6로 감소	여섯 곳 중 다섯 곳에서 두 곳	창문 빛 불편 해소
(2) 미해결	표식 2개 또는 창문 2곳 문제 남음	구별되지 않은 표식·빛이 들어온 창문이 남음	성과가 없음
(2) 미확인	늦은 시간·다른 구간·실제 사고 중 하나 이상	추가 관찰이 필요함을 해당 범위와 함께 설명	산책길 전체 위험이 사라짐

두 문장 조건을 지키고 각 문장의 채점 요소를 모두 담으면 인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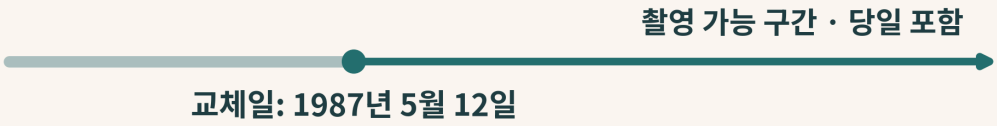
되돌아볼 개념 질문 05~06 · 성과와 한계를 함께 담는 판단.

자료 D · 설명을 고치는 근거

자료 D · 출처를 따지고 촬영 범위를 좁힌다

자료	작성자	작성 시기	알려 주는 것	알려 주지 않는 것
목록	사진 정리자	촬영 여러 해 뒤	나중에 붙인 사진 제목	제목의 출처 정확한 촬영일
회고	주민 한 사람	인터뷰 때 시점 미제시	사람들이 모였다는 기억·정황	공식 행사 여부·정확한 촬영일
장부	본문에 미제시	교체 날짜는 기록됨 작성일 미제시	탑신 유지 시계만 교체 새 시계 모양	사진 촬영일 모임의 목적

장부·사진 식별이 정확하다는 본문 전제에서 판단



최종 설명
기존 탑신·새 시계·모인 사람들

별도 보존
옛 제목 + 출처·판단 한계

해설 19

정답 ③ **근거: 4문단.** 장부는 탑신을 유지하고 시계만 바꾸었다고 밝힙니다. 사진에 그 새 시계가 있으므로 주어진 전제 아래 촬영은 교체일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이는 새 시계와 교체 기록을 연결한 **추론**입니다.

선택지	오독 표시	왜 틀렸나
①	자료 넘어 확정	장부와 사진 어디에도 사람들이 모인 목적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②	자료 넘어 확정	교체일 당일 또는 이후의 촬영은 가능하나 당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④	사실 지움	탑 신축의 기억이 맞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였다는 정황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7 · 새 자료가 확정하는 범위.

해설 20

정답 ④ 제목을 나중에 붙인 목록, 개인이 기억을 말한 인터뷰, 시설 교체 장부는 작성 시점과 담은 내용이 다릅니다. 목록·회고·장부의 **신뢰성**은 **출처**와 작성 시기, 해당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근거: 2~4문단.**

선택지	오독 표시	왜 틀렸나
①	자료 넘어 확정	목록은 촬영 당시 제목을 옮긴 기록이 아니라 여러 해 뒤 붙인 제목입니다.
②	자료 넘어 확정	주민은 공식 행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③	자료 넘어 확정	장부에는 사진 촬영의 경위나 광장 모임 기록이 없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7 · 자료의 성격과 판단 대상.

해설 21

정답 ② 예전 제목을 지금의 확정 사실로 쓰지는 않되, 언제 붙인 제목이고 왜 확정하기 어려운지를 함께 남기는 처리입니다. 목록·회고·장부의 **신뢰성**을 **출처**와 작성 시기로 따져도 자료 종류만으로 우열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2~6문단.**

선택지	오독 표시	왜 틀렸나
①	자료 넘어 확정	최종 설명에는 확정할 수 없는 옛 제목을 사실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③	자료 넘어 확정	자료 종류의 우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처와 알려 주는 범위를 따집니다.
④	자료 넘어 확정	정확한 촬영일과 모임의 목적은 모두 미확인으로 남겼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7~08 · 출처 보존과 사실 확정의 구별.

해설 22

정답 ① 2~4문단의 서로 다른 자료를 대조한 뒤, 5~6문단에서 잘못된 설명을 고치고 남은 미확인을 구별합니다. 구체적인 탑 모양이나 인터뷰 문구를 줄여도 이 관계는 남아야 합니다.

선택지	오독 표시	왜 틀렸나
②	사실 지움	4문단에서 확인한 새 시계의 식별까지 보류할 이유는 없습니다.
③	자료 넘어 확정	회고 전체를 제외하지 않으며 장부로 촬영일과 모임 목적을 확정하지도 않습니다.
④	자료 넘어 확정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옛 제목으로 축하 목적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7~08 · 글 전체의 핵심 관계 보존.

해설 23

예시 답 맞는 부분: 사진 속 시계는 교체된 새 시계이다. 근거 없이 확정한 부분: “1987년 5월 12일 당일” 또는 “공식 축하 행사”.

채점 요소

요소	꼭 들어갈 내용	인정하는 표현	인정하지 않는 표현
맞는 부분	사진 속 시계가 새 시계임	교체일(1987년 5월 12일) 당일 또는 이후 촬영	새 시계인지 알 수 없음
근거 없이 확정한 부분	해석에서 날짜 또는 목적의 단정 표현을 그대로 옮김	‘1987년 5월 12일 당일’ 또는 ‘공식 축하 행사’	확인되지 않았다고만 쓰고 해당 표현을 옮기지 않음

되돌아볼 개념 질문 07~08 · 확인된 사실을 남기는 오독 수정.

해설 24

예시 답 (1) 자료를 대조한 결과 탑신은 그대로이고 시계만 교체되었으며, 사진은 1987년 5월 12일 또는 그 이후에 찍힌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정확한 촬영일과 모임의 목적은 미확인으로 남기고, 예전 제목은 나중에 붙인 제목이라는 출처와 현재의 판단 한계를 밝혀 별도 기록에 보존했다.

채점 요소

요소	꼭 들어갈 내용	인정하는 표현	인정하지 않는 표현
(1) 교체 대상	탑신 유지·시계만 교체	탑의 몸체는 그대로 두고 시계 교체	탑 전체 신축
(1) 촬영 범위	1987년 5월 12일 당일 또는 이후	5월 12일 이후(당일 포함)	5월 13일부터 또는 교체일 당일로 확정
(2) 미확인	정확한 촬영일과 모임 목적 모두 미확인	날짜·목적을 확정할 수 없음	정확한 날짜 또는 공식 축하 목적을 확정
(2) 보존 방식	옛 제목을 나중에 붙인 출처·판단 한계와 함께 별도 보존	작성 시점과 확정하기 어려움을 밝혀 남김	제목과 자료를 버림 또는 회고 전체를 거짓으로 처리

두 문장 조건을 지키고 각 문장의 채점 요소를 모두 담으면 인정합니다.

되돌아볼 개념 질문 01~08 · 근거의 범위·조건·판단 기준·오독 수정의 종합.